

사설

교과서 불교 오류 시정해야

9월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가 고등학교 국어, 철학, 사회문화 과목의 불교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류가 심각한 상태라 밝히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불교에 대한 서술이 편견과 오해의 수준을 넘어 종교적 차별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상대적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인정하고 융합할 수 있는 교과개방이 필요한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불교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오류와 편견이 발견되고 있다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점잖은 양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계 전체의 각성과 반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연구소의 감시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진행될길 바라며 교과서 편찬위원회의 산하에 불교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오류와 편견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종단합산하에 상설연구기구가 구성되어 연구와 홍보, 자료발굴 등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시기를 놓치면 백년 이후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점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몇 사람의 노선조사위 안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사위원회 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시행중인 한국도로공사와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 측은 도로와 환경 전문가, 간사 각 1인, 서울시와 경기도 추천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불교계는 문화재, 지역주민의 참여를 포함 20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다.

고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난을 통해 이미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개발과 보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귀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립공원 구역에 4km에 이르는 장대터널로 관통하는 공사인 만큼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민관협력체 구성도 마찬가지다. 그레 이후 노선조사위원회와 민관협의체의 합의 또는 결정 사항에 대해 또다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 몇 사람이 모여 기존의 설계도를 다시 확인하는 요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올해 초 개편된 고등학교 국어·철학·사회문화 교과서의 대다수가 불교 관련 내용을 잘못 서술하거나 특정 종교에 비중을 두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교과서 불교내용 오류 여전

파라미타청소년협 7차교과과정 분석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소장 김형중)가 이들 3개 과목의 7차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분석해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어교과서의 경우 상당수의 불교문학 작품이 제외됐거나 하향 편입되어 있다. 철학교과서에서는 기초적인 불교용어조차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사례 13항목이 지적됐다. 사회문화교과서는 지나치게 불교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국어 (국·영·수)' 교과서의 경우 6차 교육과정에 실렸던 불교문학 작품 3편이 삭제됐다. 또 6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 13종 대부분이 실렸던 한용운의 시의 경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발행 교과서 2편, 한국교육미디어 발행 교과서 1편이 각각 실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9종 문학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 철학 교과서의 경우, 내용 대부분이 서양철학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술상의 오류와 종교편향이 심

국어 불교문학 3편·한용운詩 거의 삭제 철학 '창조론' 을 사실처럼·종교편향 심각

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서에 실린 동·서양 철학자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에 25명(24.5%)이었던 동양 철학자 수가 11명(12.6%), 15명(23.4%), 20명(20%)으로 줄어든 반면, 서양 철학자의 경우 여전히 7~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사 발행 철학교과서의 경우, 원효나 아미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고 있다. 불교 관련 기술상의 오류 및 교정 실수 등은 13항목이나 됐다. 석가모니의 6년 수행처인 설산수달 상(雪山修禪相)을 '눈 내리는 히말라야 산'으로 기술했는가 하면, 석

굴암 본존불상을 '보존불상'으로 표기하는 등 교과서로서의 공신력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창조론을 삽입하고, 이를 마치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기존 1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 주로 불교의 탄생 과정, 대·소승 불교, 간다라 미술 등만 간단히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회당학원 이사장에
진당 대정사 선출



회당학원 이사장은 12일 경주 위덕대학교 이사장실에서 제31회 이사회를 열

고, 새 이사장에 진당 대정사(사진)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77년 포항 위덕심인당에서 첫 교화를 시작한 진당 대정사는 진각종 통리원 홍교부장, 사감부장, 사감원장, 회당학원 이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 위덕심인당 주교와 기로원장을 맡고 있다. 진당 대정사의 이사장 취임식은 10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덕대 손제석 총장을 4년 연장, 유임하기로 결의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청소년 통일의식 고취 '한라에서 백두까지'

9월28일~10월2일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개 종교 연합단체인 '온겨레순살기운동본부'는 청소년 통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3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행사를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출발, 삼양연길 북경 등을 경유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인 해랑강, 두만강 국경지대와 백두산 순례로 진행된다. 02720-9777

강유신 기자

'조계종사 고·중세편' 편찬위 발족

교육원, 제2기 고시위원회도 구성

조계종 교육원은 12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조계종사 고·중세편> 편찬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 교육원은 무비(교육원장) 법산(동국대 교수) 스님, 김상현 교수(동국대를 지도위원에, 인경(동국대 강사) 원철(해인사 강연 강사) 효탄(동국대 강사) 승원(중앙승가대 강사) 스님 등 8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목차 및 필진 확정과 편찬 방향을 수립하는 등의 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계종사 고·중세편>은 조계종 성립 이전의 불교에서부터 삼국 고려 조선 시대 조계종의 역사와 스님들의 활동상을 담게 되며, 내년 말쯤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원은 11일 제2기 고시위원회 구성했다. 2기 고시위원회 위원에 법산(동국대 교수) 황적(종회의원) 지오(해인사 강주) 지안은(해사 승가대학원장) 현묵(송광사 선원장) 종석(중앙승가대 교수) 지현(송광사원장) 지욱(종회의원) 지형(첨암사 승가대학장) 스님 등이 다. 한명우 기자

문화재소유권 중단이전 추진

조계종 문화부, 소유주·관리자 변경계획

성보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유실을 막기 위해 현재 해당사찰 이름의 표기를 중단 명으로 하고, 소유자도 주지스님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로 통일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정문화재 소유주 및 관리

자 변경 계획을 10일 중앙총회에 보고했다. 문화부는 현재 2,600여건의 조계종 소유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사찰은 소유주 및 관리자가 ○○사로 돼 있으나 일부사찰의 경우 소유주 및 관리자 ○○

사 주지, 사유 또는 지정 당시 주지스님 속명으로 표기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를 불교문화재를 지정별, 소유주별, 지역별, 문화재 유형별로 파악하여 9월중 450쪽 분량의 자료집을 발간한다. 김원우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carrying a large sign that says '00불교 조계종' (00 Buddhism Jojong). The person is looking up at the sign with a thoughtful expression. The text '이름 비슷해 헛갈려요' (The names are similar, I get confused) is written below the illustration.

케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송신하십시오. 기사화되는 경우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태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e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5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법회 축

도심속의 포교전당. 본 금하선원은 2001년 인도 가니스와르 고승으로부터 부처님 사리 5과를 모셔왔습니다. 이제야 우리 불자님들께서 2546년 전 부처님의 진신사리 친견 참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하선원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와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법회 1000일 기도 입제를 병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정 표. 2002년 10월 14일(월) - 10월 20일(일). 오전(10:00) 사시기도 (11:00) 큰스님 법어(11:40) 백팔 참배 및 진신사리 친견 (12:30) 점심공양 (14:00) 금강경 사경 (15:00) 회향

- 금강경 사경 불탑 봉안. 금강경 사경 완성 후 불탑에 봉안 됩니다.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본 사찰로 전화주시면, 금강경 사경을 택으로 우송, 사경 완성 후 본 사찰로 보내 주시면 불탑에 봉안해 드립니다. 성지 순례차 오시는 주지 스님과 신도분들은 미리 전화주시면 점심공양을 준비해 드립니다.

- 법회 집행 위원회. 회 주: 일륜 주 지: 청암. 집행위원장: 신도회장 집행 부위원장: 거사팀 회장, 신도 부회장. 위 원: 금하선원 신도회, 거사팀회, 불교 교양대학 1기~17기생. 사 무 장: 덕광 재 무: 여래심. 포 교 임 원: 금하선원 신도 회장단, 거사팀 회장단, 불교 교양대학: 1기~17기 총무단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일 시: 2002년 10월 14일 오전(10:30) 음 력: 9월 9일. 장 소: 금하선원 법당 접수기간: 2002년 9월 25일~ 10월 13일.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전화 021823-9135~6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4·5번 출구 1분거리